

미술계가 변하면 미술출판계도 변한다

사진 그래픽티 모노그래프 등 명화 자리 대신

글_허선

미술서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에서 미술 서적이라고 하면 보통 '커피테이블 북'이라는 이름 아래 르네상스, 인상주의, 다다이즘 등 한때 미술계를 주름잡았던 사조나 고흐, 모네, 클림트 등 당시대를 대표했던 작가들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미국 미술계의 변화에 따라 출판계도 사진이나 대중미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개성 있는 스타일의 출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만 레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등과 같은 사진작가들의 사진이 유화, 조각 등 다른 예술장르와 같이 미적인 감수성을 보여준 이래로 점차 미술로서의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책이 하나의 예술 방식인 동시에 현실의 기록이며 감동적인 해설로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그동안 다른 미술서적에 비해 조금은 뒤쳐져있던 위상을 회복하는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세대를 겨냥한 미술출판의 활성화다. 팝문화, 디자인, 만화 등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들이 하나 둘씩 두각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기성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했던 미술서적에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출판시장에 있어서 미술서적의 흐름은 미술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책의 높아진 위상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사진이야말로 본격적인 예술의 장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미술시장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사진은 더 이상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있거나, 중요한 일에 있어 시각적 이미지로만 사용되던 때는 지났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진책은 그동안 잡지

나 책에서 보여준 사진의 폭넓은 전달성을 토대로 출판 시장에서 그 독자적인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사진책은 단지 예술가들의 대표작품을 보여주는 명화집이 아니다.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부드러운 흐름과 구성으로 하나의 예술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워커 에반스의 《1938년 미국 사진들 American Photographs》,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들 The Americans》은 사진책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어떤 면에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집이 출간되는 것이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보다 작품을 알리는데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사진책은 단순한 사진의 나열이 아니라 개념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신경 쓴다는 것이 특징이다. 필립-로르카 디꼬르시아의 《스토리북 인생 A Story Book Life》은 하나의 가족 앨범 작업이다. 그는 1978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25년 동안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상적인 일상생활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연출해왔다. 일련의 반복과 편집을 통해 디꼬르시아는 일상생활의 복잡하고도 서사적인 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폴 그라함의 《미국의 밤 American Night》은 미국의 인종적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시에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반복된 이미지들을 책에서 표현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사진책은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는 대담하고 솔직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진작가 라이너 레이스트는 지난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아파트가 있는 뉴욕 38번가에서 셔터를 눌렀다고 한다. 지난 2001년 9월 그의 카메라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현장을 찍게 되었고 300여 컷이 넘는 이미지들이 올해 9월 《9월 11

일11 September》이라는 타이틀로 출간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 뉴올리언스 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현장을 담은 《허리케인 카타리나 Hurricane Katrina: The Storm that Changed the America》는 뉴올리언스 출신의 원톤 마르 사리스의 사진모음으로 출간되었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미술 출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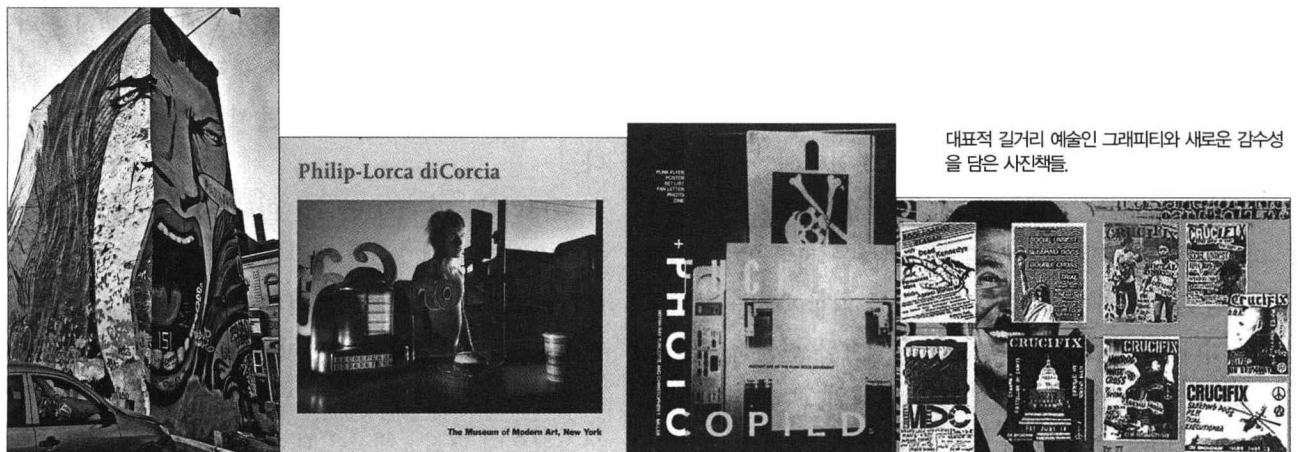
그동안 출판시장에서 아버지 세대를 위한 미술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의 책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TV나 웹에서 본 그림이나 텍스트의 혼합 등 새로운 디자인 경향과 함께 자라온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팝문화, 디자인, 만화 등의 미술서적이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R77 출판사는 길거리 아트를 표방하며 펑크락 운동의 즉석아트를 표현한 《엉망징창이자 & 포토카피된 Fucked up & Photocopied: Instant art of the Punk Rock Movement》과 길거리 아트인 그래피티 작가로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활발히 전시를 했고 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와 같은 신문에서도 작품을 발표한 디렉의 모노그래프 책 《행복의 소리 Sonic Order of Happiness》를 출판했다. 이 책을 출간한 R77 출판사는 지난날 전설적인 그래피티 작가였던 로저 가스트맨이 세운 회사다.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책을 출간하는 소형출판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길거리 아트와 프린지 문화 등 최신 신세대 문화를 표방하는 책들로 전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은 타겟 마케팅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미국의 정형화된 문화와 거리를 두며 젊은이들의 최신 유행을 주도하는 어반아웃피트스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그래피티 책을 내기도 했다.

오랫동안 커피테이블 북을 내는 주류 출판사에서 일해 왔던 해리 아브람스는 신세대 독자들을 위해 팝문화, 공예 그리고 교육시장에 초점을 둔 출판사 '아브라함 이미지'를 론칭했다. 이 출판사는 미술문화에 대한 젊은 독자들의 관심을 대변하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책들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엔 웹 코믹을 토대로 한 그래픽 소설 《엄마의 암 Mom's Cancer》을 출간했다.

출판은 그 어느 문화보다 앞서나가는 장르라고 한다. 항상 새로운 문화의 소개 창구이자 지식의 창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판 분야 중 유독 미술서적은 다른 분야에 비해 한 박자 늦은 감이 있다. 독자들은 이제야 동서양 유명작가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미술이 무얼까 하며 관심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나마 미술서적 코너가 예전에 비해 조금은 덜 한가해 보이기도 하다. 미국의 미술 출판계는 미술계와 함께 현재 무엇이 이슈인가에 대해 항상 귀를 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미술시장을 뒤쫓고 있는 사진 장르에 대한 관심이 그러하고 젊은 세대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신세대 문화에 대한 포용이 그러하다. 우리네 미술 출판계도 미술계의 행보와 함께 하며 새로운 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 www.galleryjinsun.com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길거리 예술인 그래피티와 새로운 감수성을 담은 사진책들.